
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자	2022년 9월 8일(목) 총 3매	
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	• 매개체감염병과장 • 담당자	최은정 ☎440-5441 이원식 ☎440-5446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‘오싹 오싹 진드기 매개 감염병’ 주의하세요!
- 가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추석을 앞두고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벌초, 성묘,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.

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*은 매년 4월 ~ 11월에 발생하며, 주로 7월 ~ 10월에 집중된다.

*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,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)
 :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물린 후 1~2주 이내 고열, 오한, 두통, 구토, 설사,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.

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환자 수는 105명, 인천은 2명이었으며, 최근 5년간 연평균 환자 233명 중 40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7.2%에 달하는 등 예방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.

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대와 공동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(수도1권)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

매개체 전파 질환 모니터링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채집환경(풀밭, 무덤, 산길, 잡목림)에 따라 참진드기를 채집해 진드기 발생상황과 SFTS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.

올해 8월까지 채집된 2,603 마리의 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, 채집환경별로 풀밭 1,542마리(59.2%), 잡목림 444마리(17.1%), 산길 439마리(16.9%), 무덤 178마리(6.8%) 순으로 채집돼, 참진드기 발생이 많은 풀밭 지역에서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의 최선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 차단하기,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, 귀가 후 씻고 빨래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, 야외활동 후 의심증상이 나타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” 라고 말했다.

<붙임> 작은소피참진드기 성충



작은소피참진드기 *Haemaphysalis longicornis*



출처 : 질병관리청

<참고>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(출처: 질병관리청)

<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>

○ 작업 및 야외활동 전

-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
-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
- 진드기피해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

○ 작업 및 야외(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)활동 시

-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
- 돛자리를 펴서 앉고,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
-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
-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
-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

○ 작업 및 야외활동 후

- 옷을 털고, 반드시 세탁하기
- 즉시 목욕하고, 옷 갈아입기
- 머리카락, 귀 주변, 팔 아래, 허리, 무릎 뒤,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
-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
- 2주 이내에 고열, 오심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